

바람 속에 머물다 토레스 델 파이네

채지형 / 여행작가 www.traveldesigner.co.kr

서 있는 곳만으로도 바람이 가슴으로 파고드는 '바람의 땅' 파타고니아. 우리나라의 11배나 되는 광활한 대지에 끝없는 평원이 펼쳐져 있는 곳. 평원을 달리다 만나는 반짝이는 호수와 조각전이라도 열린 듯 차례로 서 있는 멋진 산들은 파타고니아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아름다움이다.





바람의 소리가 들릴 것 같은 토레스 델 파이네의 길들



바람의 땅 '파타고니아'

스페인의 식민 시대를 겪었던
아름이 고스란히 땅에 녹아있
어 더욱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파타고니아. 파타고니아는 협곡과 피요르드, 섬, 호수들은 그 모양과 색이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함을 지녔다. '파타고니아에 가보기 전에는 세상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 고 할 정도로 파타고니아는 자연의 위대함 이상의 에너지를 품고 있다.

남아메리카 대륙의 남위 37도 이남 지역을 통틀어 '파타고니아' 라고 부르지만, 파타고니아가 행정구역상 명칭은 아니다. 파타고니아는 칠레와 아르헨티나 두 나라에 걸쳐있다.

파타고니아에서도 최고의 절경으로 꼽히는 곳은 토레스 델 파이네(Torres del Paine) 국립공원이다. '파이네의 탑'이라는 뜻을 가진 이 국립공원에는 화강암으로 빚어진 2000m 이상의 고봉들이 즐비하다. 특히 양뿔 모양의 거대한 봉우리는 토레스 델 파이네 공원의 트레이드 마크. 거대한 봉우리에 살포시 앉아있는 눈과 바람을 머금은 초원, 그리고 그 초원을 가득 메운 회색빛 덩불과 풀밭들은 무더져 있던 촉수를 툭툭 건드린다. 뿔 모양의 설산도 멋지지만 문득 만나게 되는 옥빛 찬란한 호수와 익숙하지 않은 야생동물들을 만나게 되는 재미도 쏠쏠하다.



곳곳에 자리한 에메랄드빛의 호수



곳곳에 자리한 에메랄드빛의 호수



멀리서 떠내려온 빙하



밀로돈 동굴

파타고니아 최고의 절경, 토레스 델 파이네

토레스 델 파이네 국립공원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트래블러'가 뽑은 죽기 전에 가봐야 할 50곳 리스트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1978년에는 세계 생물권 보호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토레스 델 파이네 국립공원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칠레의 푸에르토 나탈레스에 가야한다. 나탈레스는 파타고니아 지역의 베이스 캠프격인 폰타 아레나스보다 작지만 아담해서 더 정감이 가는 곳이다. 푸에르토 나탈레스에서 토레스 델 파이네 국립공원까지는 버스로 약 1시간 30분이 걸리는데, 시간이 없는 여행자들은 폰타아레나스에서 머물면서 토레스 델 파이네 공원에 다녀오기도 한다. 폰타아레나스에서는 약 5시간이 걸린다.

토레스 델 파이네 공원은 공원 자체가 넓기 때문에, 그 안에는 여러 개의 길을 품고 있다. 가장 많은 이들이 이용하는 길은 차를 타고 100km에 이르는 횡단로를 따라 돌아보는 길이다. 그 횡단로만 따라 가더라도 토레스 델 파이네 속의 보석들인 폭포와 호수, 빙하들로 이루어진 비경을 만날 수 있다.

신의 조각품들을 모아놓은 국립공원

토레스 델 파이네 국립공원 여행의 시작은 밀로돈 동굴, 쿠에바 델 밀로돈. 이 동굴은 선사시대 원시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으로, 높이 30m, 깊이 200m에 달하는 동굴에 3m 키에 몸무게가 1000kg인 '밀로돈'이라는 동물이 살았다고 한다. 1896년 독일의 고고학자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가죽과 뼈를 토대로 했을 때 이빨 없는 곰처럼 생긴 동물이라고 한다. 이후 밀로돈은 사라졌으나, 그 후부터 이 지역이 초원에서 산림으로 바뀌고 생태시스템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 일부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꾸준히 밀로돈을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다음에 가볼 곳은 그레이 호수. 보트를 타고 빙하 가까이 가면, 산에서 밀려 내려온 엄청난 두께의 빙하 덩어리

들이 푹푹 떨어져 호수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빙하는 그레이 빙하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길이가 6km, 두께가 30m에 달한다. 보트를 타고 거대한 빙하 덩어리 사이를 비집고 다니는 기분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특별하다.

토레스 델 파이네 공원을 돌아보면 파타고니아에만 사는 구아나코와 난두 떼를 만나기도 한다. 공들여 만든 작품들처럼 시원하게 솟아있는 산과 눈이 덮인 봉우리, 에메랄드 빛의 아름다운 호수와 모든 것을 날려버릴 것 같은 바람은 토레스 델 파이네를 더욱 인상 깊게 만들어준다.

남미 최고의 트레킹 코스

시간이 넉넉하다면 트레킹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호수와 빙하, 그리고 아름다운 산으로 이어지는

토레스 델 파이네 공원은 남미의 최고의 트레킹 코스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표지판도 잘 갖춰져 있고 편의시설도 마련되어 있다. 트레킹으로 토레스 델 파이네를 모두 돌아보려면 5~8일 정도는 잡아야 한다. 트레킹 시즌은 12월 초부터 3월말까지로, 남미의 여름휴가 시즌인 1~2월은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는다.

바람을 맞으며 토레스 델 파이네를 바라보면, 뭘지 모를 위엄이 느껴진다. 마치 신의 섬세한 손길로 조각해 놓은 것 같은 산이 거역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만 같다. 감히 범접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자연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다고나 할까. 그러나 토레스 델 파이네를 처음 만났을 때의 쿵쾅거리던 마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가벼워진다. 그리고 그 위에 이 세상을 만들어준 조물주에, 이 바람 속에 있게 된 것에, 숨 쉬고 있는 것에 대해 수많은 감사할 것들에 대한 마음이 포르르 올라온다. ☺



아름다운 토레스 델 파이네 공원